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수습 철저”

김윤덕 국토부장관, 공사 과정 안전관리 실태 점검 조치 긴급 현장 방문서 “추가 사고·인명피해 최소화해야”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 담당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현장의 구조상황과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전날 오후 울산 남

구 용잠로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긴급 방문해 추가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수습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사고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 담당 인력을 현장에 급



파해 사고현장의 구조상황과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크레인과 굴삭기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해 구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공식 입장을 서둘러 마친 김 장관은 오후 11시경 현장에 도착해 구조상황 등을 점검하며 “오늘과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다”며 “배물된 재해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협조에 계신 분들은 수습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구조에 최선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도 “오늘 고창서 삼성전자 스마트허브 단지 착공식”

10~15일 주요일정 공개... 내년 예산안 관련 도지사 브리핑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주요 일정들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도정을 위해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고창 신활력산단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 단지 착공식’이다. 김 대변인은 “삼성전자의 첫 전북 투자이자 지역 산업사에 남을 뜻깊은 결실”이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전북 산업 전반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7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행정부지사의 국립 새만금 수목원 현장 점검도 진행된다.

11일 오전 9시에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나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다. 같은 날 도청 4층 회의실에서는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 위촉식’이 열리며,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15명과 지도교수 1명

등 총 16명이 위촉장을 받는다. 김 대변인은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의 대표 스포츠 외교 수단”이라며 “전북의 국제 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2시에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기후테크 창업기업 성장 지원 성과보고회가 열려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업 육성 성과를 공유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인천에서 열리는 제8회 한·일 지사·시장회의에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다. 회의 주제는 “경제·산업 협력”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으로, 김 지사는 후자 세션에서 전북의 인구정책과 ‘올림픽도시’ 구상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여의도 쉐넌호텔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통한 새만금 완성’을 위한 새만금 정책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전북 메가특구 구축 전략’과 ‘서해권 K-물류 거점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3일에는 농생명·축산산업 분야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며, 14일 오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주요 일정들을 공개하고 있다.

전 10시 전주대학교 은누리홀에서는 ‘미래에너지 솔루션 2025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RE100 △탄소중립 △그린수소 개발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초강연과 패널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15일 오전 10시에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5 올림픽도시 포럼’이 열린다.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장 혁신적인 올림픽’, ‘지속 가능한 한국 스포츠의 미래’ 등을 논의한다. 이종국·오상욱·곽윤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패널로 참여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밖에 △전북 정치포럼(국회 의원 회관) △시군의장협의회 대표회의(전주 라한호텔) △국회 국가 예산 확보 활동(14일 오후) 등 도청 현안도 이어진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지역 정치 기반 구축 계기

기본소득당 전북자치도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이 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북자치도당 창당은 기본소득당의 열 번째 광역시도당 출범이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 받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전북자치도당의 창당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지역 정치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창당대회는 식전행사로 ‘국회의원 용혜인과 함께하는 기본소득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전북 도민과 용혜인 대표의 직접 소통으로 시작했다. 이후 전북도당 규약 제정과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창당대회 본행사가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이라는 비전에 동의하는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기본소득당의 열 번째 광역시도당 창당이 가능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통해 지역소멸 등 전북의 현실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호 전북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 전북도당이 농민, 청년, 지역 공동체를 잇는 구심점이 되어 지방선거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오늘 도의회 2025년 마지막 회기

제2차 정례회 내달 15일까지... 행감·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돌입한다. 2025년도 마지막 이번 회기는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6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행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견을 제안·제보받아 활용하고자,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3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제안을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 토론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검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 토론회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본의 준비를 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거저 치른 잔치”

혁신당 도당, “시민 혈세 사유화한 특권 카르텔의 예산 낭단”

팀 빈 200억 원짜리 경기장과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전주시 드론축구 월드컵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 드론축구 월드컵은 행정 실패를 넘어 시민 혈세를 사유화한 ‘특권 카르텔’의 예산 낭단”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당 대변인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드론축구 월드컵은 관광객은 없고 선수들만 모여 ‘거저 치른 잔치’로 끝났다”며 “전주까지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준 기자

당은 “두 전·현직 시장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드론산업도 스포츠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며 “애초부터 산업 R&D 예산을 독점하기 위한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전주시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협회 사무국장은 해임됐지만 협회장과 캠프 원장은 직함은 바뀌며 영영력을 유지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승진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캠프 회계감사를 요구했지만 캠프는 이를 거부했고, 전주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세 가지를 촉구했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특별감사 실시, 수사기관의 비자금 및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 캠프 예산지원과 위탁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장 활용방안 재검토다.

정도상 위원장은 “전주시가 더 이상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시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청년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이 ‘드론 카르텔’을 끝까지 추격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7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자신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단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단법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 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은 재생에너지를 수수로 전할·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의의 상생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순 기자

‘새로운 시작, 함께 가는 길’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익산시 본격 활동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치적 소통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지난 6일 오후 2시, 익산시 모현동 롯데시네마 2층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지역주민과 당원, 지지자 400여명을 맞이했다. 이번 개소식은 ‘새로운 시작,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공감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와 지역 정책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렸다. 개소식 후인 오후 3시 30분,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지역과 시민의 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쳐 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은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익산시 선화로6길 7)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2시, 익산시 모현동 롯데시네마 2층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있다.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심보균 부의장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는 시민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큰 힘이 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익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한편 심 부의장은 행정안전부 차

관과 전북도 행정부지사, 익산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행정 전문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되어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준 기자

‘통쾌한 반란, 함께 만드는 내일’

22일 김양원 전 전주부시장 출판기념회

군산과 전주부시장을 역임한 김양원 전 부시장이 자신의 공직 경험과 미래 비전을 담은 자서전 ‘통쾌한 반란, 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K-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전주부시장 재직 시에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행정고시 인맥을 잘 활용하여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단체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선미준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청년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김 전 부시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31년간 중앙과 지방 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현장



중심의 행정과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목받아왔다. 김양원 전 부시장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여는 ‘통쾌한 반란’을 통해 역동적이고 더 나은 부안의 내일을 함께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며 “노동자군 진봉준의 동학정신처럼, 군민과 함께 하는 혁신의 길을 걷고 싶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